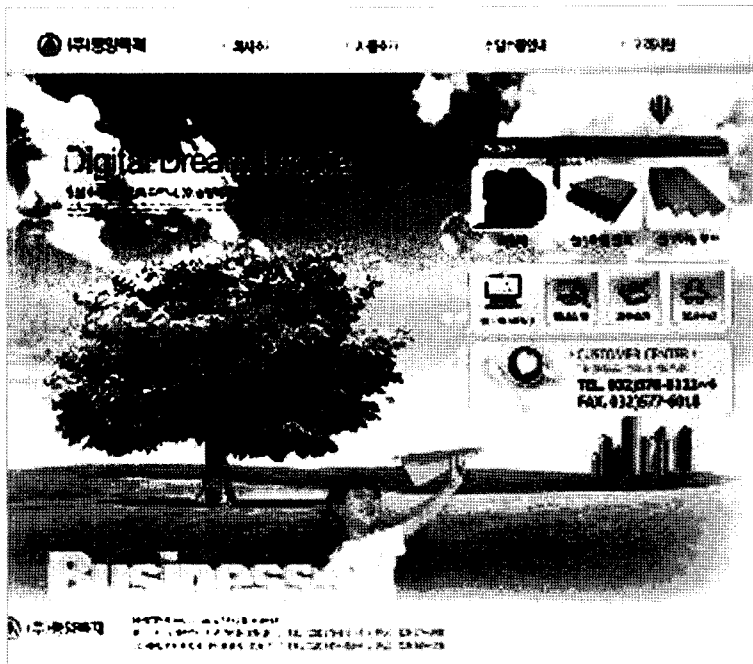


◆ (주) 동양목재 홈페이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



목재 제조업 분야의 전통기업 (주)동양목재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을 기대해 본다.

◆ 영림목재 녹색성장 정부 간담회 참석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는 지난 2월 18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정책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 고위급 초청 간담회’에 KBCSD(허동수 LG칼텍스 정유회장) 회원 자격으로서 참석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 등 정부측과 삼성, LG, 롯데, 코오롱,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E-1, 수자원공사 사장단 및 GE KOREA, 라파즈 석고보드 한국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경호 사장은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 그 중심에 목재의 이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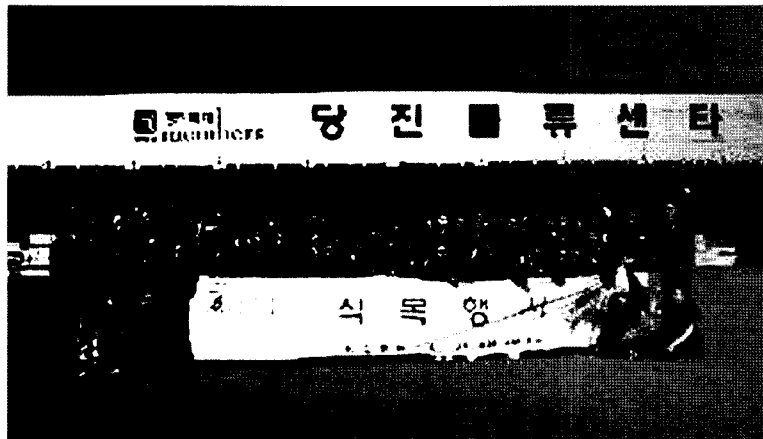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의 녹색산업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후 에너지 절약제품의 도입과 보급, 환경산업투자,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 등의 사업이 괄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목재야말로 지속경영가능한 원자재임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비금속, 석유 등은 쓸수록 고갈되나 목재는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다. 목재의 이용과 활용은 간벌 및 가지치기 등의 숲가꾸기 산물과 대체수종조립의 작업으로써의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둘째, 수력, 풍력, 전기차,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산업도 필요하나, 동시에 인간에게 가장 친화적인 목재산업에 대해 막연한 전통제조 산업으로만의 인식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물 및 목재포장 등에서 나오는 자재들은 현재 폐기물로 지정되어 환경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재생 또는 재활용 자재로 명시해준다면 이를 통하여 비료, 축산용, 연료용(펠릿), PB등에 보다 쉽게 용재로써 쓰이게 됨에 따라 관련목재산업의 업계발전은 물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재 재활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영림목재members, 식목행사 개최



영림목재members는 4월3일 충남 당진군 면천면에 위치한 당진물류센터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1년생 해송 100그루 및 해송묘목 200그루, 매실나무 200그루의 식수를 시행하였다. 올해는 식수 후 나무에 준비해간 본인의 이름표를 달아줌으로써 나무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해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목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매년 전 계열사 임직원들은 당진소재 물류센터에서 식재, 식수행사를 앞장서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장 주변의 녹지조성은 물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구환경에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영림목재, 마흔 나이테’ 발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영림목재가 지난 역사를 기록한 ‘영림목재, 마흔 나이테’를 발간했다.

1969년 발동기와 수동 제재기를 설치해 10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강영신 대표의 영림목재에서부터 이제는 현경목재, 이-라이브러리, 장연, 와이-엘이라는 여러 자회사들 뿐 이경호 대표의 영림목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회사의 40년 사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몰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잊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경호 대표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단순히 추억을 되짚어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되새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람의 40년간 일대기를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기업의 40년사를 일일이 되짚어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대표도 “분실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기록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셨고, 초창기 직원으로 시작해 임원이 돼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기억들이 영림의 40년 사를 정리해 줬다. 덕분에 우리 영림의 40년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 대표는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38명에 이르는 영림은 지금의 40년도 그러했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졌을 때에도 그 안에 ‘사건’보다는 ‘사람’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용마로지스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올해로 창립 28년째를 맞은 용마로지스는 대표적인 3PL 물류업체으로 국내 녹색물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기업이다. 1983년 동아그룹의 물류자회사로 출범해 현재는 동아제약, Boston Scientific 등 의약·의료기기, 로레알, 존슨앤존슨, 웰라, 클라란스 등 화장품 화학사를 상대로 통관·유통가공·수배송 등 물류 전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마로지스는 수·배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올해부터 탄소인벤토리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동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사의 배출량 감축은 물론 제조·화주사에게 제공할 다양한 탄소저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운송차량에 공회전방지 장치를 장착, 연료소모를 줄이고, 본격적인 탄소감축시대에 대비해 물류기업으로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용마로지스는 다양한 녹색물류 관련사업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대형 물류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수배송과 운송차량 대형화, 물류거점 재배치 사업은 물론, 탄소배출량 관리와 홍보, 탄소저감 물류 컨설팅, 에코드라이브 사업 등 용마로지스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물류 사업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량과 배송거리를 측정해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하는 △탄소발자국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박스 라벨에 탄소배출량을 표기하는 △배송박스 라벨링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공회전방지 장치 장착사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정보 제공 △탄소저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물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용마로지스(주) 2009년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 획득



국토해양부 주관인 2009년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2010년 1월 21일 (목)에 여의도동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열렸다.

물류산업의 핵심서비스 산업인 화물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 서비스품질 등급을 주는 제도로 19업체를 심사한 결과, 9개사를 인증업체로 선정했으며, 용마로지스(주)는 9개사 중 최고점수인 AA등급을 받았다.

용마로지스는 작년 2009년 8월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우수 화물운수업체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2009년 12월 30일 인증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물류 시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을 기대해본다.

◆ 기획재정부, 2010년 물류비 개선 중점 추진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4개 분야 선정

3월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에서 물류비 개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조합을 통한 과제 발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Top-down 방식은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기획·선정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물류분야가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류분야는 취업유발계수에서 10억 원 투자 시 15.8~19.2명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건설·건축이 16.9명, 전산업이 13.9명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기업물류비가 매출액 대비 9.1%로 선진국인 일본의 4.8%보다 높아 기업경쟁력 제고에 애로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국내 제 3자물류 비중

은 48.2%로 미국, 유럽의 60~7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2008~2009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제 3자물류로 전환 시 물류비가 평균 14%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물류비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제 3자물류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물류 공동화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와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 눈에 보이는 기업물류비, 체계적 관리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4월 8일 무료 보급

국토해양부의 R&D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유통업의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 물류비 절감과 물류관리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 물류회계프로그램이 기업에 무료로 보급되었다.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제조업, 유통업)은 국토해양부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과 기본해설서를 반영하여 영역별, 기능별로 물류비 입력 및 자동계산, 시계열·지급형태·이자계산비율의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이 제조업체에서 기업물류비 산정하는데 널리 활용하게 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규모나 추세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지점별 또는 동종업계 대비 객관적인 물류비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해 물류프로세스별 문제점 발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화주기업이 물류비와 물류활동에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지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류체계 효율화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은 지난 4월 8일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 통합물류협회, '2010년 3대 핵심사업 선정 추진키로'

재정자립기반을 위한 '물류아크로폴리스' 설립 추진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는 지난 2월 26일(금) 14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



텔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비상임 임원 및 상임임원 선출(안), 지난해 수지결산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등을 상정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설립 후 처음 치러지는 총회에서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3대 핵심 사업인 △대 정부업무 추진역량 강화 △회원예 대한 밀착지원 및 소통기능강화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학위 수여식 열어

물류학 박사 1명, 석사 41명 배출

지난 2월 24일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개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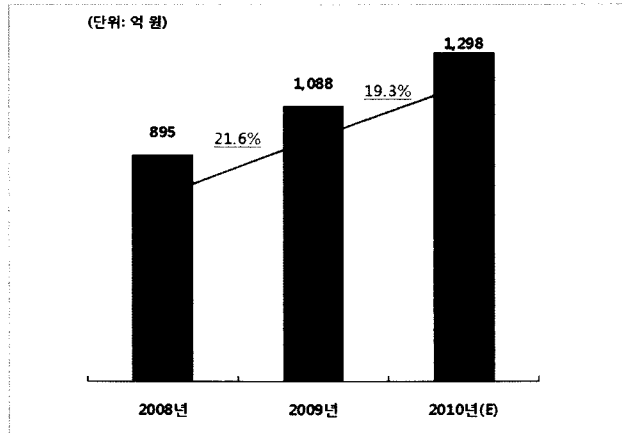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물류학 박사 1명과 글로벌 물류MBA과정 22명, 물류MBA과정 10명, 학술석사 과정 7명, 교통물류학과 석사 2명 등 총 41명의 석사가 배출됐다.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은 2006년 국토해양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물류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다.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의 물류MBA과정은 주간 글로벌물류MBA과정과 야간 물류MBA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글로벌물류MBA과정은 총 1년 6개월 동안 각 과목을 1개월 단위로 강의하는 모듈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유럽·호주·아시아 14개 대학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올해 국내 RFID 시장 19.3% 성장한 1,298억 원 전망

유통·물류를 중심으로 사용 범위 점차 확대



IT시장조사 업체인 KRG에 따르면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국내 RFID 시장은 2009년 전년대비 21.6% 성장한 약 1,088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전년대비 19.3% 성장한 약 1,298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KRG에 따르면 국내 RFID 시장은 여전히 공공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민간시장도 기업들이 물류분야 및 제품의 이력관리·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등 유통·물류를 중심으로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내 RFID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RFID 시장은 기술 도입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RFID 시장이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시장 외에 민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RFID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도화된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2회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가 부활 열쇠

꺼져가는 인천 제조업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회 인천경제발전 전략 세미나에 모인 경제 관계자들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 위기극복의 최대 화두로 꼽았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을 분석한 뒤 인천지역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조업 관계자들의 정책주문과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이 오갔으며,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는 “제조업의 고용불안 해소와 우수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천시가 적극 나서 제조업 회복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조 인천시 경제통상국장은 “기업 이전공장을 위한 검단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과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면서 “올 한해 인천 제조업 부활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이들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 위한 포럼 출범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 물류기술 및 물류 신산업 발굴, 국가 물류기술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 물류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물류기술포럼’을 설립한다.

‘미래물류기술포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강종희)이 주도하여 창립하게 됐으며 3월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물류기술 관련 정부·연구기관·대학 및 물류업계가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운·항만, 도로, 철도 및 유통물류에 관한 선진 물류기술 개발과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미래물류기술포럼은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과 한경대학교 김성진 총장이 공동의장을

말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의장단 기관으로 참여했다.

창립 총회에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물류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해 물류기술 선진화를 위한 인적 · 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결집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화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지난 3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연안해운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동 업무위탁에 따라 해운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실적물량에 대하여 매분기별 톤·km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동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3월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올해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co.kr)를 통해 공고하며, 사업계획서 사실확인 및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중 2010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중심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으며, 이번 전 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송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협회, 업계 지원 8대 역점사업에 총력전

중소수출기업 대상 물류컨설팅 강화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위축된 무역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무역업계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COEX에서 무역업계 대표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년 정기총회를 통해 중소·지방기업 무역현장 지원과 해외마케팅 강화를 비롯한 금년도 8대 역점사업을 채택했다.

무역협회가 정한 역점사업은 △무역현장 지원 강화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전자무역·무역인력 양성 등을 통한 무역 인프라 확충 △중국·일본 등 주력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 △아세안·인도·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e-KITA 구축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이다.

◆ 무역협회, 중견기업 대상 전문 물류컨설팅 서비스 시행

3자물류, 복합운송 등 각 분야 '화주현장지원단' 구성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특화된 전문 물류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역협회는 매출액 500억~1,000억 수준의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업체에 비해 수출입 물류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물류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수출입운입할인센터(RADIS) 협력사를 중심으로 물류컨설팅, 3자물류, 복합운송, 물류 IT, 운송클레임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화주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개별기업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품목, 매출, 수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개월 이상의 물류현황 진단,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기업물류비 절감은 물론 WMS(창고관리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수출입통관, 운송·물류계약, 운송클레임 자문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매출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물류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상담, 원포인트 자문서비스, 지역별 물류상담회 개최 등 희망업체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목재산업 단체 총연합회 결성

이경호 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대거 참석해

지난 2월 17일 미디어우드(대표 윤형운)의 주관으로 목재산업 단체 간담회가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10개 단체의 장 및 담당자가 참석해 총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초대 회장으로 이진제 한국목재공학회장을 내정했다. 총연합회의 발대식은 4월3일 식목행사와 겸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는 대한목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목재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나다 순)로 10개 협단체가 자리했다.

연합회 공식 명칭은 '목재산업 단체 총연합회'로 정했으며, 각 단체를 회원으로 2년 임기의 회장을 두기로 했다. 공식 명칭을 두고 '총연합회'와 '협의회' 두 가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좀 더 상징적이고, 공표 시 기관 등에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는 명칭이 '총연합회'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연합회의 활동이 공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초대 회장직은 한국목재공학회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경호 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북항 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측에 의견을 전달한 일이 있다. 인천 소재의 목재산업을 대변하기 위

한 발언이었고, 목재공업협동조합의 장으로서 발언권을 얻은 것이었지만, 일부 제조업체와 단체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느낌은 배제할 수 없었다”며 “목재산업을 총괄할 만한 단체가 생기는 것은 법안의 제정뿐 아니라 산업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꼭 필요하다”며 총연합회 구성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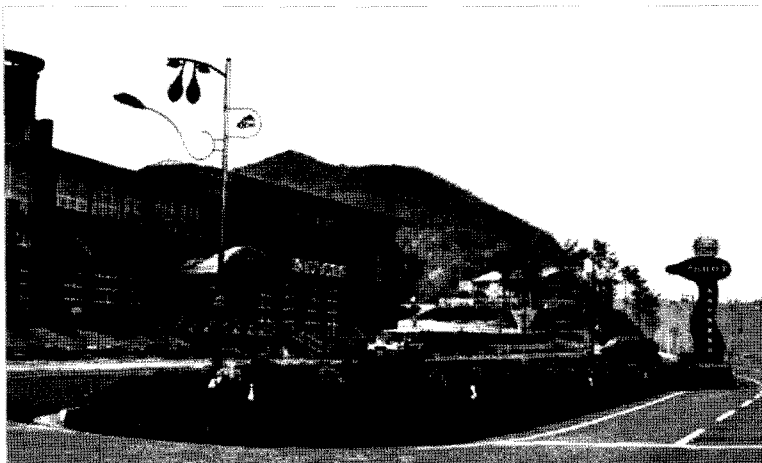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인증목재 사용에 있다

지난 2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임산물협회(FPAC)가 주최하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주관해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과 목조건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한그린 프로젝트에 캐나다의 산림경영인증 시스템을 소개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캐나다 임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경험을 나누고자 진행됐다.

세미나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FPAC의 뵘에르 고티에 유럽&아시아 대표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원으로부터의 목재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박사가 ‘친환경 목조건축 한그린 프로젝트’를, FPAC 이사벨 데사네 부사장이 ‘합법적 목제품의 공급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인증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 목재의 모든 것, ‘청양목재문화체험장’ 개관



충남 청양에 목재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의 장이 될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청양군은 칠갑산 기슭인 대치면 광대리 '청양목재문화체험장'에서 기관단체장, 산림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5일 개관식을 가졌다.

2006년부터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건립한 목재문화체험장은 6702㎡의 부지에 목재문화체험관과 목공예판매장, 기획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야외목재데크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서각과 목공예, 뿌리공예 등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도 전시돼 있다.

특히 목재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칠갑저수지 주변에 자리 잡아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체험장 입구에 설치된 6m 높이의 '콩밭 매는 아낙네' 목재상은 청양목재문화체험장의 랜드마크가 되어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